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지지와 관련 변인 메타분석

A Meta-Analysis of the Variables Related with Social Support for Female Marriage Immigrants

이은주(Eun-Joo Lee)¹, 전미경(Mi-Kyung Jun)^{2*}

¹Department of Home Economics, Dongguk University

²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integrate study results through a meta-analysis of previous studies on the variables related with social support for female marriage immigrants.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established the foundation of an integrated social support system for female marriage immigrants which considers both the functional perspective and structural perspective of social support, and suggested plans for an efficient support system. All social support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female marriage immigrants marriage life, child-rearing behavior and attitude, reduction of stress and depression and psychological stability. In relation to the effect size of each variable related with all social support, the marriage variable had the biggest relationship with it, followed by the parenting variable, the psychological variable and the stress variable in that order. With reference to the relationship with related variables according to the sub-domain of social support, from the structural perspective, spousal support showed a high relationship with the marriage variable and the stress variable. It was also especially, very highly related with the marriage variable. In addition, a married woman's family support and expert support had an intermediate relationship with the marriage variable, and the husband's family support and friend support had a low relationship with it.

From the functional perspective, material support had a very high relationship with the marriage variable, whereas it had a low relationship with the stress variable and the psychological variable. Emotional support was also highly related with marriage variable, but showed an intermediate or low relationship with the psychological variable and the stress variable. On the other hand, informational support displayed an intermediate relationship with the stress variable and the psychological variable, and a high relationship with the marriage variable. Lastly, evaluative support had a high relationship with the marriage variable and the psychological variable.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proposed plans for an integrated social support system as follows. First, education ought to be provided for the spouses, and support for marital adjustment should be offered. Second, there plans should be made for continuous bonding with the family of origin, and support should be given to address changes in awareness of the relationship with the husband's parents. Third, it is required to revitalize the local community and self-help groups, and provide the female marriage immigrants with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social activities.

▲주제어(Key Words) : 여성결혼이민자(female marriage immigrant),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기능적 지지(functional support), 구조적 지지(structural support), 지지 체계(support system)

* Corresponding Author : Mi-Kyung Jun,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Pil-dong, Jung-gu, Seoul 100-715, Korea, tel: +82-10-2260-3889, E-mail: mkjun@dongguk.edu

I. 서론

오늘날 국가 간의 교류 증대 및 세계화의 영향으로 자본, 노동, 인구 등의 초국가적 이동이 매우 빈번하다. 그 중 결혼을 통해 이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를 포함하여 상당수의 여성들이 이동하고 있는 현상을 '이주의 여성화(feminization of migration)'라고 한다. 한국은 1980년대 후반 특정 종교를 통한 한국남성과 일본·필리핀 여성의 혼인을 시작으로, 1992년 중국과의 수교를 계기로 조선족 여성과 농촌 남성의 국제결혼이 이루어지면서 여성의 이주가 본격화되었다. 이후 1990년대 후반부터는 국제결혼중개업체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국제결혼이 급증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93,786명, 2008년 122,552명, 2010년 141,65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1년 현재 총 125,031명(86.4%)으로 남성결혼이민자 19,650명(13.6%)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이다(Statistical Korea, 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증가는 사회적·국가적으로 그들의 정착 과정에 따른 다양한 어려움을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지지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요청하고 있다.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란 사회적 지지망의 기능적·구조적 속성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 및 지지욕구의 충족 정도를 반영하는 개인의 사회관계의 유대감, 신뢰감에 대한 지각 정도를 의미한다(Park, 1985).

여성결혼이민자와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성을 살펴보면, 여성결혼이민자는 새로운 환경과 상황적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와 직면하게 된다. 우선 자신의 가족문화와 배우자의 가족문화가 충돌하게 되면서 언어장벽은 물론, 식습관, 가족 상호작용, 가족규범, 가족에 편입되는 과정의 문제 등 적응과 관련된 많은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Chang & Myers, 2003). 또 결혼이민자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이질감,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의한 소외감으로 가족 내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한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적응문제는 내·외적 스트레스와 가족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가족해체로 인한 사회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지속적이며 상호적인 대인과의 관계 경험인 사회적 지지에 의해서(Tracy & Whittaker, 1990; Glanz et al., 2008) 적응문제는 개선될 수 있으며, 적응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충격 또한 사회적 지지로 완화될 수 있다(Norberck, 1981; Thoits, 1995).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결혼의 질', '부부적응', '양육행동과 태도', '스트레스',

'우울', '심리적 안정', '생활만족', '사회적응' 등 심리·사회적으로 일상 전반에 걸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am, Jung, & Kwon, 2009; Na & Park, 2009; Kim, Kim, & Oh, 2010; Song, 2010; Hyun & Kim, 2012).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여성결혼이민자가 이주와 정착 과정에서 경험하는 적응문제의 어려움을 감소시키고 적응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적 지지 체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크게 공식적 지원과 비공식적 지원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정부 혹은 지역사회의 실제적 지원 및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지지를, 후자는 타인으로부터 지지받고 있다고 인식되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의미한다(Lee & Kim, 1999; Lee, 2007; Jang & Lee, 2010). 현재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관련하여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형태를 기능적 측면과 구조적 측면으로 구분하고 있다(Kim, 2007; Sung, 2008; Ham, Jung, & Kwon, 2009; Kim, 2010; Nam & Ahn, 2011; Kim, 2012).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여성결혼이민자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 형태의 하위영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능적 측면의 사회적 지지는 친족·비친족·전문가로부터 지각되는 유형화된 사회적 지지 즉 정서적 지지·정보적 지지·물질적 지지·평가적 지지를 의미하며(Park, 1985), 구조적 측면의 사회적 지지는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친구·의미 있는 타자들로부터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를 말한다(Zimet et al., 1988). 두 가지 형태의 사회적 지지는 공통적으로 소속된 환경의 구성원을 사회적 지지의 제공자로 보고 있으며, 제공자에 의해 지각되는 유형화된 사회적 지지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단일측면의 사회적 지지이기보다는 상호개연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선행연구들은 두 가지 측면의 통합적 개연성보다는 하나의 사회적 지지 형태를 주축으로 설정하고 단일 차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실정이다.

Wilcox and Vemberg(1985)는 사회적 지지를 단일차원으로 취급하는 것보다 다중차원의 구성체로 인식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적응과 관련된 사회적 지지는 기능적·구조적 측면에서 단일 차원적 개념이 아닌 다차원적이며 상호론적 관점이어야 하며, 단일 차원적 사회적 지지 접근은 여성결혼이민자 적응을 위한 통합적 차원의 지지 체계를 위한 방향성 제시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효율적인 사회적 지지체계 수립을 위해서 기능적·구조적 측면이 모두 고려된 통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단일차원의 사회적 지지 선행연구 결과를 통합·제시할 수 있는 메타분석(meta-analysis) 접근이 필요하다.

메타분석(meta-analysis)이란 특정한 주제에 관하여 선행 연구들을 통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문헌 고찰적 분석 연구인 동시에 통합적 연구 방법을 의미하며(Glass, 1977¹⁾), 기존 문헌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연구방법론으로 선행 개별 연구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Chung & Shin, 2009). 메타분석의 장점은 공통의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있는 개별 연구 결과를 통계적으로 종합하여 수치 비교를 하는 수량적 접근방법으로 연구자의 주관이나 편견을 줄이고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또 분석 결과를 매개변인별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연구경향의 전체적인 조망을 통해서 앞으로의 연구방향도 쉽게 추론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Kim & Han, 1995).

이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변인에 대한 선행연구의 메타분석을 통해서 연구의 결과를 통합하고자 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측면과 구조적 측면이 상호보완적으로 고려된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통합적인 사회적 지지체계 근거 마련 및 그에 따른 효율적인 지지체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여성결혼이민자를 양산하는 국제결혼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그들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할 수 있는 지지체계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은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의 결과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 수립의 참고자료로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지지와 관련 변인 전체의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지지 형태와 하위영역에 따른 관련 변인의 효과크기는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지지의 개념 및 형태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라는 용어는 Cassel, Cobb, Kaplan and Killiea가 1976년 논문 제목으로 사용하면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고 이후 가족, 친구, 이웃 등에 의해

제공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도움과 원조를 의미하는데 활용되어 왔다(Park, 1985). 사회적 지지는 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이 보살핌 및 사랑과 존중을 받고 있고, 의사소통과 상호 책임을 갖는 조직망 속에 일원이라고 믿게 하는 것 중에 하나 혹은 그 이상을 포함하는 것이며(Cobb, 1976), 광의의 개념으로는 타인들로부터 제공되는 각종 자원을 의미한다(Cohen & Hoberman, 1983).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는 지지 형태의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양한데, 기능적 측면의 사회적 지지를 Cobb(1976)은 정서적 지지, 존중감 지지, 관계망 지지로, House(1981)는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도구적 지지로 분류하였고 Cohen and Hoberman(1983)은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도구적·물질적 지지, 자존감 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구조적 측면의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욕구가 의미 있는 사람에 의해 충족되는 것이며(Kaplan, 1977), 의미 있는 타자가 위기 시에 심리적 자원을 동원하고 정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Gottibe, 1983).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지지와 관련한 선행연구의 지지 형태 또한 기능적 측면과 구조적 측면으로 나뉘며 연구자가 연구목적에 따라서 수정·변용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기능적 측면의 사회적 지지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척도는 Park(1985)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사회적 지지에 대한 개념적 분석 및 고찰을 통해서 개발한 척도이다. 하위영역은 친족, 비친족, 전문가 등으로부터 지각되는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로 구분된다. 정서적 지지란 사랑, 돌봄, 이해와 긍정, 존경, 신뢰, 관심, 경청 등의 태도와 행위적 지지를 의미하며, 정보적 지지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제공의 지지, 물질적 지지는 금전과 시간 그리고 생활용품 등의 직접적인 재화와 용역 제공의 지지, 마지막으로 평가적 지지는 칭찬과 인정 등으로 인하여 자신을 평가하는 태도 및 행위적 지지로 구분된다.

한편 구조적 측면의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관계망(social network), 사회 통합(social integration) 개념과 혼용되기도 하는데, 이는 공통된 부분과 상호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Gottlieb & Bergen, 2010). 그러나 사회적 관계망은 구조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연결 범위, 즉 사회적으로 결속된 구성원 수와 범주, 연결 강도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구조적 측면의 사회적 지지 선행연구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Zimet et al.(1988)의 MSPSS(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척도는 주요 타자들로부터 받는 지지 정도를 측정한다. 하위영역에 포함되는 주요 타자들이란 가족, 친구, 의미 있는 타자들로 구성되며, 가족은 배우자 지지와 시댁 지지 혹은 친정 지지로 구분 가능하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친구는 모국 출신 친구와 한국 친구로 구분 혹은

1) Glass(1977)는 심리치료에 대한 결과들을 통합(‘치료 효과가 있다’ 논문 203편, ‘치료 효과가 없다’ 논문 172편)하기 위하여 총 375편의 선행연구의 결과를 표준화 점수인 효과크기로 산출하는 메타분석 방법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심리치료가 환자들에게 확실한 ‘효과가 있다’는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20여 년에 걸친 논쟁의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통합해서 사용되며, 의미 있는 타자는 전문가인 사회복지사, 기관 전문가, 상담사 등으로 구체화 할 수 있다.

2. 여성결혼이민자와 사회적 지지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이주와 정착 단계에서 탈영토화되고, 재영토화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며(Tomlinson, 1999), 이때 사회적 지지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생활전반의 질적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내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국내의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학위·학술 선행연구는 2006년을 시작으로 2013년 현재까지 총 39건이 집계되었으며, 선행연구의 경향성을 종합하면 <Table 1>과 같다.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방법을 살펴보면 구조적 측면의 사회적 지지 연구(9건)보다 기능적 측면의 연구(15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두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통합 연구한 사례는 총 10건으로 나타났다. 통합의 형태는 기능적 측면을 주축으로 설정하고 구조적 측면의 주요 타자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제공자로 보는 형태 또는 구조적 측면을 '지지원', '지지원의 크기', '접촉빈도·교제기간' 등의 '사회적 관계망'으로 정의하고 있다. 기타는 질적 연구 또는 사회적 지지 형태에 따른 척도를 사용하지 않은 연구이다.

선행연구에 나타난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변인은 크게 '결혼', '양육', '스트레스·만족·심리' 등으로 구분된다. 이

는 결혼을 통해 이주해온 여성은 결혼생활의 보편적 적응 문제 그리고 자녀양육 및 사회문화 적응, 심리적 안정 등에 사회적 지지가 관계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사회적 지지와 여성결혼이민자의 관계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사회적 지지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 변인인 결혼생활 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배우자와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받는다고 지각할 때 안정되고 지속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ong & Oh, 2010; Lee, 2011). 그 중 배우자 지지는 '부부적응', '결혼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결혼이민자는 가족 중에 배우자를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Hong, 2009; Na & Park, 2009; Kim, Kim, & Oh, 2010; Kim, Kim, & Oh, 2011).

구조적 측면 이외에 기능적 측면의 사회적 지지 또한 높게 지각할수록 '결혼적응'도 높았는데(Chu et al., 2008), 기능적 측면의 하위영역과 결혼생활만족과의 관계 및 영향 정도는 연구자마다 상이하였다. Choi(2006)와 Kang(2008)은 물질적 지지가 전반적인 결혼생활만족에 가장 정적인 관계가 있으며, 물질적 지지가 높을수록 사회·심리적 동질감과 전반적인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Belsky and Kelly(1994), Kim(2010) 그리고 Kim(2010)은 정서적 지지가 결혼생활의 전반적인 만족과 사회·심리

Table 1. The Status of Research on Social Support for Female Marriage Immigrants

Year	Related variable ²⁾	Social support form				Total
		structural	functional	supplement-ation and amendment · integration	etc	
2006-2008	marital satisfaction(2) · marital adjustment(2) social adjustment(1) · cultural adjustment(1) depression(1) · empowerment(1) maternal efficacy(1) · life satisfaction (1)	-	6	4	-	10
2009-2010	life satisfaction (1) · marital satisfaction(5) marital adjustment(1) · parental behavior(2) psychological stability(2) depression(1) · social adjustment(3) family life strass(1) · acculturative stress (2)	3	6	5	3	17
2011-2012	depression(3) · marital quality(1) · marital satisfaction(2) · quality of life(1) satisfaction of life (1) life satisfaction (2) · self-differentiation(1) acculturative stress (2) · korean proficiency(1)	6	3	1	2	12
		9	15	10	5	39

2) 관련변인 별로 표기된 연구논문의 개수는 단독변인 연구 이외에 두 개 이상의 변인을 연구한 논문 개수가 중복 표기된 것으로, 사회적 지지 형태 및 총계의 수치와는 다를 수 있다.

적 동질감 향상에 관계성이 매우 높다고 하였다. 물질적·정서적 지지 이외의 하위영역인 정보적·평가적 지지와 결혼생활만족과의 관계 및 영향을 미치는 정도도 연구자마다 조금씩 달랐다. Choi(2006)는 결혼생활만족과 기능적 측면의 하위영역과의 관계 정도를 물질적, 정서적, 평가적 순으로 Kang(2008)은 물질적, 평가적, 정서적 순으로 그리고 Kim(2010)은 정서적, 물질적, 정보적, 평가적 순으로 유의미한 정도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Kim(2010)은 정서적 지지와 물질적 지지는 결혼생활과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정보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다시 말해 결혼생활과정에서 발생하는 복합적 위기상황에서 다양한 지지적 관계는 결혼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Luke & Carrington, 2000; C. Dehle, Larsen, & Landers, 2001; Leslie & Letiecq, 2004), 구조적 측면에서는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의 지지가, 기능적 측면에서는 재화나 용역 자원의 지지인 물질적 지지와 공감적 자원인 정서적 지지가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와 '양육' 변인의 관계를 살펴보면, 외국모의 경우 적응갈등이 심하고 지지체계에 대한 기반이 부족할 경우 여러 가지 양육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데 (Jun & Park, 1998), 구조적 측면의 배우자 지지를 지각할 때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배우자 외의 지지는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Na & Park, 2009). 배우자 지지가 미약한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는 폭 넓고 지속적인 배우자 외의 지지가 있어야 양육스트레스를 덜 받았다 (Kim, Kim, & Shin, 2007).

기능적 측면에서는 정보적 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자녀양육 효능감과 자녀에 대한 애정적 양육태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Han, 2007; Jeong, 2010). 즉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양육행동과 태도는 구조적 측면의 배우자 지지 그리고 문제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정보와 지식을 지각할 수 있는 기능적 측면의 정보적 지지와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만족·심리' 변인인 신체 및 정신 건강과 개인의 안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Uchino, 2004; Lakey & Cronin, 2008). Kim(2011)과 Kim(2012)은 구조적 측면의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하위영역으로는 배우자로부터 많은 심리·사회적 지지를 받을수록 여성결혼이민자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우울감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Kim, 2007). 또 기능적 측면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우울'을 낮게 지각하였으며 (Kim, 2011; Kim, 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는 평가적 지지 또는 정보적 지지를 폭 넓게 지각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Kim, 2007;

Park & Um, 2009).

이와 같이 사회적 지지는 '우울감', '스트레스'와 부적 관계를 가지며, '생활만족'과는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결혼이민자의 심리적 안정과 만족에 구조적 측면의 배우자 지지와 기능적 측면의 자신을 평가하는 태도의 지각인 평가적 지지 및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지식의 지각인 정보적 지지가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지지와 관련변인의 선행연구에서 '결혼' 변인은 구조적 측면에서는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에 대한 지지의 중요성에 대부분 일치치를 보였으나, 기능적 측면에서 연구결과들 간에는 각 하위영역과 '결혼' 변인간의 관계 정도에 대한 차이가 있으므로 각 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그 외 '자녀양육과 태도', '스트레스 및 심리적 안정', '생활만족' 변인에 대한 구조적·기능적 측면의 연구결과가 상이하지는 않았으나 각 변인 별 연구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결과의 통합으로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성 정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변인의 메타분석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자료 수집은 국내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국회도서관, 한국학술정보(KISS)를 이용하였다. 이때 출판 편향을 배제하기 위해서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을 모두 포함하였다. 출판 편향(publication bias)이란 의미 있는 결과의 논문만 출판되고 의미 없는 결과의 논문은 출판되지 않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출판된 학술 논문 위주로 분석하는 경우 효과 추정 값이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Todd, 2012: 257-276).

자료 수집을 위한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의 검색 주제는 '여성결혼이민자', '이주 여성', '사회적 지지', '사회적 관계'였으며, 자료검색 결과 학위논문 25편, 학술지 논문 14편으로 총 39편이 검색되었다(2013년 5월 현재).

논문은 2차 검토를 통해서 동일한 논문이 학위·학술지에 중복 게재된 경우 또는 동일 데이터를 사용하여 여러 학술지에 중복 게재한 논문은 그 중 한 개의 논문만을 선택하였다. 그 외 연구방법에서 사회적 지지 척도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질적 연구논문 등은 제외하였고 표본크기와 상관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s) 'r' 값이 제시된 총 22편을 선정하였다. 이후 22편의 코딩과정에서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변인이 다른 연구에서 재측정되지 않은 단독 변인(한국어 능력)을 가진 논문을 제외하였다. 해

당 연구효과가 메타분석에 있어서 단독으로 관련변인의 평균 효과크기를 대표하게 되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최종적으로 총 21편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분석대상 논문의 세부내용은 <Table 2>와 같다.

2. 자료코딩과 분석

이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변인과의 효과크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독립변수인 사회적 지지 형태(기능적 측면 · 구조적 측면)와 종속변수인 관련 변인 유형을 코딩하였다. 관련 변인 유형은 21개 연구의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변인을 결혼, 양육, 스트레스, 심리 변인으로 분류하였다. 변인 유형과 그에 따른 하위 변인의 세부적인 내용은 <Table 3>과 같다.

연구특징에 나타난 스트레스 변인 전체, 심리 하위변인의 우울, 결혼 하위 변인의 이혼의도의 경우 효과크기인 상관관계의 평균 효과크기는 (-)값인데, 이는 사회적 지지에 의해 스트레스 또는 우울감, 이혼의도가 감소에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값은 관련 변인의 전체 효과크기에 영향을 주므로, 분석을 위한 코딩단계에서는 스트레스와 우울, 이혼의도 변인의 상관계수를 positive sign으로 코딩하여 분석하였다. 메타분석에 있어서 분석대상 연구논문을 코딩할 때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므로(Glass, McGaw, & Smith, 1981; Green & Hall, 1984; Rosenthal, 1984), 자료코딩은 연구원 1인과 보조연구원 1인에 의해 실시하였고 코딩 후, 통계 전공 교수 1인이 검토하는 절차를 거쳤다. 분석 대상 논문의 연구 특징은 <Table 4>와 같다.

이 연구는 사회적 지지와 관련 변인과의 관계성에 중점을

두었기에, 효과크기를 분석함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 · 형태 · 하위영역에 따른 지지 정도를 통합 · 제시하는 관련 변인의 효과크기는 도출하였으나 각 하위 변인들의 세부적인 효과크기는 측정하지 않았다. 또 사회적 지지 형태인 기능적 측면 또는 구조적 측면을 사용하였으나, 지지 유형인 하위영역 별로 상관관계를 분석하지 않은 논문은 사회적 지지에 따른 전체 효과크기는 측정 제시하였으나 하위영역에 따른 관련 변인의 효과크기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이 연구에서 분석하는 사회적 지지 하위영역에 대한 정보의 최소 수는 2개로 하위영역이 2개가 아닐 경우 전체효과크기는 측정하였으나 개별 효과크기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3. 효과크기

메타분석은 동일한 주제의 연구일지라도 다양한 결과를 가진 경우 그 결과를 종합하기 위한 동일 단위로 바꾸어주는 표준화 과정을 의미하며, 분석대상이 되는 다양한 형태의 결과를 통합 또는 비교 가능하도록 공통의 단위인 효과크기(effect size)로 변환시킨다(Oh, 2011: 14-16). 이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여성의 사회적 지지와 관련변인의 관계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상관관계 효과크기를 사용하였고, 자료 분석은 CMA (Comprehensive Meta Analysis, V2)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분석대상인 논문 21편의 상관계수 'r'값은 Fisher's z 척도를 사용하여 표준화된 효과크기로 변환해서 사용하는데(Borenstein et al., 2009), 각 논문별로 산출된 효과크기는 역변량 가중치를 구하였고 이후, 가중 평균 효과크기로 산출하였다.

효과크기 해석 기준에 대해서 Cohen(1988)은 상관효과크기(ESr)가 .10 이하이면 '작은 효과', .25이면 '중간 효과', .40 이

Table 2. The Status of Papers for Analysis

Year	2006-2008	2009-2010	2011-2012	Total
thesis	7	4	5	16
journal	-	2	3	5
	7	6	8	21

Table 3. Types of Variables Related with Social Support

Related variable	Sub-variable
marital	marital satisfaction , marital adjustment, marital affection, matrimonial communication, divorce intention
parenting	maternal efficacy, parenting behavior
stress	acculturation stress, housewives' life stress, general stress
psychology	psychological well-being, life satisfaction, self-differentiation, depression

Table 4. Research Characteristics of Papers for Analysis

ID	Author	Year	Sample	Social support form	Related variables type	Correlation effect size sample	Average effect size
1	Choi, K.	2006	80	functional	marital	4	.296
2	Kim, N.	2007	128	functional	psychology	1	.604
3	Kim, E.	2007	141	functional	stress	1	.203
4	Han, J.	2007	118	functional	parenting	4	.409
5	Kang, S.	2008	98	functional	marital	4	.707
6	Sung, J.	2008	104	functional	stress	1	.224
7	Chu et al.	2008	213	functional	marital	1	.485
8	Ham, J., Jung, H., & Kwon, M.	2009	181	functional	stress	4	.362
9	Na, D. & Park, J.	2009	174	structural	marital parenting	4	.286
10	Hong, M.	2009	235	functional	marital stress	3	.453
11	Kim, J.	2010	150	functional	stress	4	-.227
12	Kim, H.	2010	129	functional	marital	4	.607
13	Kim, S.	2010	185	functional	marital	4	.283
14	Kim, H., Kim, H. & Oh, J.	2010	182	structural	marital	18	.206
15 ³⁾	Nam, I. & Ahn, S.(a)	2011	100	structural	marital stress	3	.590
	Nam, I. & Ahn, S.(b)	2011	100	structural	marital stress	3	.582
16	Lee, Y.	2011	306	functional	marital psychology	2	.300
17	Yoo, Y.	2011	177	functional	marital stress	2	.479
18	Kim, H.	2012	119	structural	psychology stress	2	-.182
19	Kim, J.	2012	168	functional	stress	3	-.204
20	Kim, M.	2012	106	functional	psychology	4	.484
21	Hyun, K. & Kim, Y.	2012	558	structural	psychology	4	-.246

상이면 '큰 효과'라고 하였다. 또 효과크기는 신뢰구간을 활용하여 해석 가능하며, 이 연구에서는 95% 신뢰구간을 정하여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면 효과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한다(Littell, Corcoran, & Pillai, 2008: 82).

3) 남인숙 외(2011)는 여성결혼이민자를 농촌(a), 도시(b)로 구분하여 연구하였으므로, 개별 효과크기를 제시하였다.

4. 동질성 검증과 분석모형

Hedges and Olkin(1983)에 의하면 분석대상이 되는 효과크기들이 모집단의 효과크기를 잘 나타내고 있는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동질성 검정이 필요하다. 즉 분석대상 논문의 전체적인 효과크기를 측정하기 이전에, 각 연구에서 추출된 효과크기가 동일한 모집단에서 추출된 것인지에 대한 동질성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동질성 검사 결과, 효과크기들의 분포가 동질하지 않고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났을 경

우에 그에 따른 분석모형을 선택할 수 있다.

분석모형으로는 랜덤효과 모형(random effects model),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s model), 혼합효과 모형(mixed effects model)이 있다. 개별 연구물들이 동질적일 경우 연구 내 변동량만을 고려하는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s model)으로 분석하게 된다. 랜덤효과 모형(random effects model)은 서로 다른 연구들의 이질성을 감안한다는 특성이 있으며, 랜덤효과 모형으로부터 추출된 결과의 추론은 모집단으로 일반화할 수 있다(Oh, 2011: 164). 한편 Borenstein et al.(2009)은 이질적인 연구들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고정효과 모형으로 평균 효과크기를 측정한다면 과대 추정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대상인 효과크기에 대한 동질성 검정 결과 .05 수준에서 효과크기가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동질성 검정 통계량 $Q=523.87$ $df=79$, $p=.000$). 이질성 지수인 I^2 는 84.90으로, Higgins et al(2003)에 따르면 이질성 지수가 25는 '낮음', 50는 '중간', 75는 '높음'이므로 이질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랜덤효과 모형으로 전체 효과크기를 측정하였다.

5. 출판 편향

분석대상 연구물들의 Funnel plot을 통해서 출판 편향(publication bias) 정도를 확인한 결과 <Figure 1>과 같이 좌우가 대칭을 이루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Duval and Tweedie의 'Trim and Fill'로 평균 효과크기가 큰 연구들의 값을 보정했을 때, 보정 효과크기는 .29로, 측정된 전체 효과크기 .33(<Table 5> 참조)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 한편 Rosenthal의 안정계수(fall-safe N)는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전체효과를 생성하는데 필요한 연구의 수를 계산한다(Todd, 2012: 257-276). 이 연구의 분석대상 연구물의 안정계수는 912로, 즉 측정된 전체 효과크기를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효과크기가 0인 새로운 논문 912편이 추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평균 효과크기가 큰 연구가 포함되었으나 측정된 전체 효과크기는 안정적임을 의미한다.

Funnel Plot of Standard Error by Fisher's 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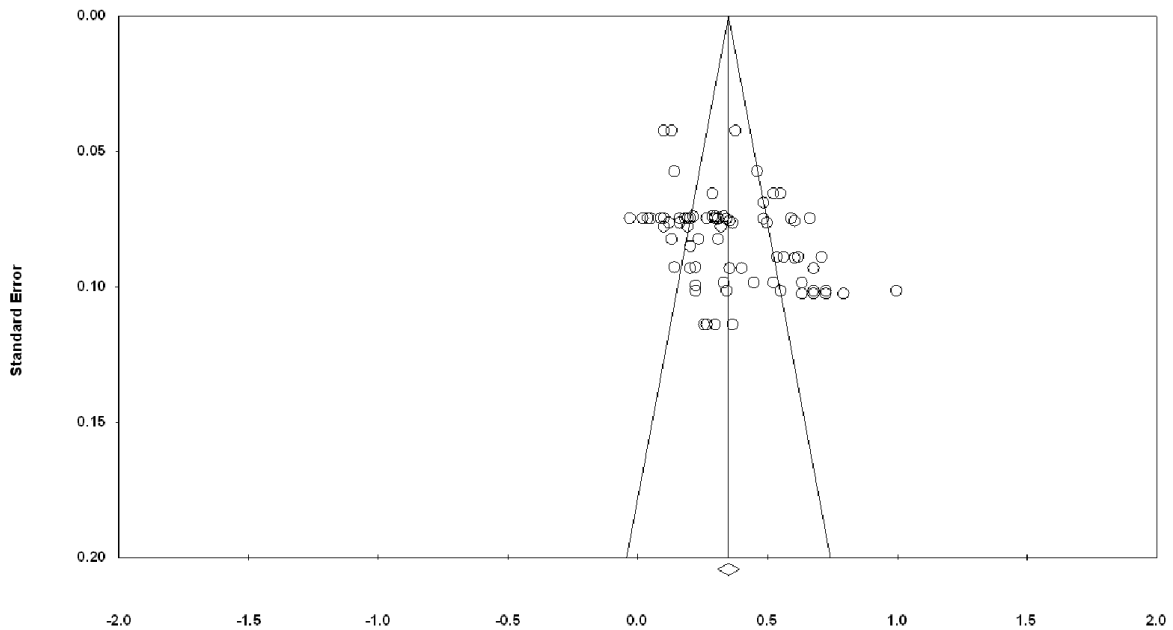


Figure 1. Publication Bias Analysis

Table 5. The Whole Effect Size of Variables Related with Social Support

K	Q	df	ESr	95% CI	
				Lower	Upper
80	523.87***	79	.33	.296	.374

K=effect size sample, Q=homogeneity test statistic, df=degree of freedom, ESr=correlation effect size, 95% CI=95% confidence interval
 *** $p < .001$

IV. 연구결과

1.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지지와 관련 변인의 전체 효과크기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관련변인 전체에 대한 효과크기를 측정 한 결과 .33으로 나타났다. Cohen(1988)에 의하면 효과크기가 .25이상이면 '중간 효과' 크기이므로 사회적 지지와 관련변인 전체(결혼, 양육, 스트레스, 심리)는 '중간' 이상의 관계성을 가진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생활, 자녀양육행동과 태도, 스트레스와 우울감소, 심리적 안정에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세

부 내용은 <Table 5>와 같다.

사회적 지지와 관련 변인 전체에 대한 효과크기를 다시 관련 변인 별 효과크기로 살펴보면 결혼 변인의 효과크기는 .36으로 사회적 지지와 가장 높은 관계성을 가진 변인으로 측정되었다. 이어서 양육 변인(ESr=.34), 심리 변인(ESr=.33), 스트레스 변인(ESr=.28)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내용은 <Table 6>과 같다.

2. 사회적 지지 형태와 하위영역에 따른 관련 변인의 효과크기

1) 사회적 지지 형태에 따른 관련 변인의 효과크기
 사회적 지지 형태에 따른 관련변인의 효과크기는 기능적

Table 6. The Effect Size of Each Variable Related with The Entire Social Support

Related variable	Sub-variable	K	Q	df	ESr	95% CI	
						Lower	Upper
marital	marital satisfaction	43	355.78***	42	.36	.295	.416
	marital adjustment						
	marital affection						
	matrimonial communication						
parenting	divorce intention	6	21.24**	5	.34	.211	.463
	maternal efficacy						
	parenting behavior						
stress decrease	acculturative stress	15	41.80***	14	.28	.207	.343
	housewives' life stress						
	general stress						
psychology	psychological well-being	16	90.21***	15	.33	.252	.395
	life satisfaction						
	self-differentiation						
	depression decrease						

K=effect size sample, Q=homogeneity test statistic, df=degree of freedom, ESr=correlation effect size, 95% CI=95% confidence interval
 ** $p < .01$, *** $p < .001$

Table 7. The Whole Effect Size of Variables Depending on the Types of Social Support

	K	Q	df	ESr	95% CI	
					Lower	Upper
structural	39	315.75***	38	.29	.229	.345
functional	41	167.48***	40	.38	.333	.426

K=effect size sample, Q=homogeneity test statistic, df=degree of freedom, ESr=correlation effect size, 95% CI=95% confidence interval
 *** $p < .001$

Table 8. The Effect Size of Related Variables According to Structural and Functional Perspectives

	Related variable	Sub-variable	K	Q	df	ESr	95% CI	
							Lower	Upper
structural	marital	marital satisfaction	25	235.15***	24	.29	.206	.373
		marital adjustment						
		marital affection						
		matrimonial communication						
	parenting	divorce intention	2	3.56	1	.26	.156	.353
		maternal efficacy						
	stress decrease	parenting behavior	6	24.99***	5	.36	.206	.493
		acculturative stress						
		housewives' life stress						
	psychology	general stress	6	41.13***	5	.22	.113	.326
psychological well-being								
life satisfaction								
self-differentiation								
functional	marital	depression decrease	18	74.20***	17	.45	.374	.513
		marital satisfaction						
		marital adjustment						
		marital affection						
	parenting	matrimonial communication	4	13.55*	3	.39	.211	.539
		divorce intention						
	stress decrease	maternal efficacy	9	9.517	8	.23	.173	.272
		parenting behavior						
		acculturative stress						
	psychology	housewives' life stress	10	20.81*	9	.39	.323	.461
general stress								
psychological well-being								
life satisfaction								
		self-differentiation						
		depression decrease						

K=effect size sample, Q=homogeneity test statistic, df=degree of freedom, ESr=correlation effect size, 95% CI=95% confidence interval
 *p < .05, ***p < .001

측면이 .38로 구조적 측면 .29보다 관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지지를 물질적·정서적·정보적·평가적 지지로 유형화하여 제공받고 있다고 지각했을 때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Table 7>과 같다. 기능적·구조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각 측면에서 높은 효과크기로 나타난 변인은 상이하였다. 우선 구조적 측면의 스트레스 변인의 효과크기가 .36으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고 결혼 변인(ESr=.29), 양육 변인(ESr=.26), 심리 변인(ESr=.22)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타자들로부터 지각되는 지지가 있을 때 여성결혼이민자의 스트레스 감소가 '큰 효과' 크기에 근접한 정적인 관계성이 있었다. 양육과 결혼 변인도 '중간 효과' 크기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기능적 측면의 지지에서 결혼 변인이 .45로 '큰 효과' 크기인 .40보다 높게 측정되었고 양육과 심리 변인도 .39로 관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스트레스 변인은 .23으로 '중간 효과'보다 다소 낮았다. 범주화하여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변인을 제외한 대부분이 정적인 관계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구조적 측면의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감소에, 기능적 측면의 사회적 지지는 결혼 생활만족과 적응에 정적으로 높은 관계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부 내용은 <Table 8>과 같다.

2)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에 따른 관련 변인의 효과크기 사회적 지지 형태의 하위영역에 따른 관련 변인의 효과크

Table 9. The Effect Size of Related Variables According to the Sub-domains of Structural and Functional Perspectives

	Related variable	Support sub-domain	K	Q	df	ESr	95% CI	
							Lower	Upper
structural	marital	spouse support	6	137.37***	5	.52	.470	.566
		friend support	7	4.78	6	.07	.022	.132
		women's parental home support	3	1.77	2	.22	.135	.296
		husband's home support	3	5.71	2	.16	.075	.239
		expert support	3	4.36	2	.22	.140	.300
	stress decrease	spouse support	4	14.33*	3	.43	.346	.508
functional	marital	material support	4	18.65***	3	.45	.381	.523
		emotional support	4	24.32***	3	.41	.332	.481
		information support	4	10.82**	3	.43	.351	.497
		evaluate support	4	15.71**	3	.41	.332	.481
	stress decrease	material support	2	0.29	1	.16	.052	.268
		emotional support	2	1.39	1	.16	.052	.268
		information support	2	0.58	1	.27	.167	.372
	psychology	material support	3	8.84*	2	.23	.066	.379
		emotional support	3	18.38***	2	.29	.059	.491
		information support	3	15.44***	2	.27	.065	.466
evaluate support		3	37.32***	2	.38	.058	.628	

K=effect size sample, Q=homogeneity test statistic, df=degree of freedom, ESr=correlation effect size, 95% CI=95% confidence interval
 * $p < .05$, ** $p < .01$, *** $p < .001$

기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구조적 측면의 배우자 지지는 결혼 변인에서 효과크기 .52로 관계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친정 지지와 전문가 지지, 시대 지지 순으로 관계 정도가 측정되었고 친구 지지는 '작은 효과' 크기인 .10보다 낮은 .07로 나타났으므로 결혼 변인과 거의 관계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배우자 지지는 스트레스 변인과의 관계성이 .43인 '큰 효과' 크기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의 지지가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만족, 결혼적응, 부부애정, 부부의사소통, 이혼의도 및 스트레스 감소 등에 높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능적 측면에서 결혼 변인의 사회적 지지는 4개 하위영역 모두 .40보다 큰 효과크기로 측정되어 관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물질적 지지가 .45로 가장 높았다. 스트레스 변인은 물질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는 .16으로 관계성이 중간보다 낮았으나 정보적 지지는 .27로 중간보다 높았다. 즉 재화나 용역의 지지 또는 공감적 지지보다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받는 실질적 지지를 지각할 때 스트레스 감소에 좀 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심리 변인은 평가적 지지가 .38로 가장 큰 효과크기이고 그 외 영역은 '중간효과' 크기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약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심리적 안녕감, 생활만족, 자아분화, 우울 감소에 기능적 측면의 사회적 지지는 대부분 모든 영역에서 정적인 관계성을 가지며, 그 중 칭찬과 인정에 의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평가적 지지가 여성결혼이민자의 심리적 안정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한편 구조적 측면의 양육 변인과 심리 변인 그리고 기능적 측면의 양육 변인은 사회적 지지 하위영역의 상관계수가 보고되지 않았거나, 2개수가 아닌 경우 개별 효과크기를 제시하지 않았다. 세부 내용은 <Table 9>와 같다.

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지지와 관련한 선행 연구의 메타분석을 통해서 사회적 지지와 관련 변인들(결혼, 양육, 스트레스, 심리)과의 관계성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여

성결혼이민자 대상 통합적 사회적 지지체계 근거 마련 및 그에 따른 효율적인 지지체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지지 전체 및 사회적 지지 형태와 하위영역에 따른 관련 변인 별 관계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지지 전체는 관련 변인인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생활, 자녀양육행동 및 태도, 스트레스와 우울 감소 그리고 심리적 안정에 정적인 관계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전체와 관련 변인 별 효과크기는 결혼 변인이 가장 관계성이 높았고 양육 변인, 심리 변인, 스트레스 변인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결혼을 매개로 이주한 여성이민자들이 한국에 정착하면서 겪게 되는 복잡적이고 다양한 적응문제 및 결혼생활 영위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사회적 지지 형태에 따른 관련 변인의 전체 효과크기는 기능적 측면이 구조적 측면보다 관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측면에 따른 관련 변인 별 관계성은 구조적 측면에서는 스트레스 변인과 관계성이 가장 높는데 비해, 기능적 측면은 결혼 변인, 양육 변인, 심리 변인과의 관계성이 높게 나타났다. 즉 여성결혼이민자는 사회적 지지 제공자로부터 지각되는 무형의 지지보다 유형화된 지지에 대한 지각 정도가 더 높았고 특히 결혼만족 및 적응, 양육행동과 태도, 심리적 안정 및 만족과 높은 관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스트레스 감소에는 기능적 측면의 지지보다 구조적 측면의 지지가 더 정적인 관계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사회적 지지 형태의 하위영역에 따른 관련 변인과의 관계성을 살펴보면 구조적 측면의 배우자 지지는 결혼 변인 및 스트레스 변인과 높은 관계성을 나타냈고, 그 중 결혼 변인과의 관계성이 매우 높았다. 그 외 결혼 변인에 있어서 친정 지지와 전문가 지지는 중간 정도의 관계성이 있으며, 시댁 지지 및 친구 지지와의 관계성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능적 측면의 물질적 지지는 결혼 변인과는 관계성이 매우 높았지만 스트레스 변인, 심리 변인과는 낮은 관계성을 보였으며, 정서적 지지 또한 결혼 변인과는 관계성이 높았으나 심리 변인, 스트레스 변인과는 중간 또는 낮은 수준의 관계성을 보였다. 한편 정보적 지지는 스트레스 변인, 심리 변인과는 중간 정도의 관계성을 나타냈으며, 결혼 변인과는 높은 관계성이 있었고 평가적 지지는 결혼 변인 및 심리 변인과 관계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적 사회적 지지체계의 근거 마련을 위하여 관련 변인 별로 구조적·기능적 측면의 사회적 지지 전체와 형태 및 하위영역에 따른 관계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결혼 변인은 사회적 지지 전체와 가장 높은 관계성을 보였다. 결혼생활은 여성결혼이민자에게 한국 문화권에서의 사회적 정체감을 획득할 수 있는 일차적 환경이면서 적

응문제와 관련된 역할수용, 태도, 규범, 가치 습득에 영향을 미친다. 적절한 사회적 지지가 제공된다고 지각될 때 결혼생활만족 및 가족 상호작용에 긍정적이며, 적응과정에서의 문제 상황을 정의하고 대처할 수 있는 수행능력이 향상된다. 사회적 지지 전체와 결혼 변인의 높은 관계성은, 반대로 사회적 지지에 대한 낮은 지각은 결혼 안정성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나아가 부적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결혼 변인은 배우자 지지와 물질적·정서적·정보적·평가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 때 결혼만족·결혼적응·부부애정·의사소통·이혼의도 감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결혼의 질과 배우자 지지와의 밀접한 관계성은 기존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으나(Hong, 2009; Na & Park, 2009; Kim, Kim, & Oh, 2010; Kim, Kim, & Oh, 2011), 기능적 측면에서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었던 물질적·정서적 지지 이외에 정보적·평가적 지지도 '큰 효과' 크기의 관계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용역 및 돈 또는 물품을 직접적으로 제공, 관심 및 애정의 신뢰적 지지,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자신에 대한 평가가 호의적일 때 결혼생활만족 및 적응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는 모국의 문화권으로부터 배우자의 문화권으로 진입하는 새로운 환경과 관계를 경험하게 되며, 타인의 기대감에 반응하고 적응해야 하는 행동적 요구를 강화 받는 등 복합적 상황에 배치된다. 이때 배우자 지지와 더불어서 기능적 측면이 고려된 지지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친정 지지는 시댁 지지보다 결혼 변인에 좀 더 관계성이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Hong(2009)의 연구에서 부부적응에 배우자 지지 이외에 가장 높은 관련 변인으로 원가족 지지가 나타난 것과 일치한다. 전문가 지지의 지각 정도는 친정 지지 지각 정도와 동일하였다. 즉 원가족인 친정과 적절한 관계가 유지되고 사회복지사, 상담사, 기관 전문가 등의 지지를 지각할 때 타국에서의 결혼생활적응에 도움이 됨을 시사한다. 낮은 관계성으로 나타난 시댁 지지는 상호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한국가족문화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시부모의 조언을 개입과 간섭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시부모가 외국인 며느리의 모국문화에 대한 이해 및 차이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고 한국문화수행을 당연시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관계성이 매우 낮게 나타난 친구 지지는 이주여성의 모국 출신 친구들이 심리적 안정감과 소속감을 제공하고 불안과 무기력감 감소에 도움이 되지만(Choi, 2006), 결혼생활만족 및 적응과는 관계성이 적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결혼이민자가 결혼생활에 대한 조언과 지지를 제공받을 수 있는 친구 집단을 형성하지 못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으며, 또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고립 상태를 간접적으로 의미할 수도 있다.

둘째, 양육 변인은 사회적 지지 전체와의 관계성에서 결혼

변인 다음으로 높았다. 여성결혼이민자 적응 초기단계 이후 직면하게 되는 자녀양육문제에 사회적 지지가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구조적 측면보다 기능적 측면의 지지가 양육행동 및 태도에 정적 관계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기존에 바람직한 부모역할로 기대되는 자녀 양육태도를 개인과 가족에 한정하여 양육태도를 살펴보던 실정과(Kim, Lim, & Jung, 2008) 상치되는 결과이다. 양육 변인과 관련된 기능적·구조적 측면의 하위영역이 2개가 아니거나 상관관계수가 보고되지 않아서 개별 효과크기를 측정 제시하지는 못하였으나, 선행연구에서 구조적 측면의 배우자 지지와 기능적 측면의 정보적 지지가 높을 때 양육행동 및 태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Han, 2007; Kim, Kim, & Shin, 2007; Na & Park, 2009; Jeong, 2010).

한편 정보적 지지가 많은 어머니일수록 그렇지 못한 어머니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의 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더 높았다(Abernaty, 1973). 따라서 자녀양육에 대한 양성평등 의식 함양 및 기관차원에서 자녀 교육에 대한 지식 및 정보 제공 지원과 경험적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 구성이 필요하다.

셋째, 스트레스 변인은 배우자 지지와 정보적 지지를 지각할 때 문화적응 스트레스·주부생활 스트레스·일상적 스트레스 감소에 긍정적이었는데, 기능적 측면의 정보적 지지보다 구조적 측면인 배우자 지지가 더 정적인 관계성이 높았다. 여성결혼이민자는 새로운 문화와 환경 적응에 관련한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므로 스트레스 상황적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긴장요인을 완화시킬 수 있는 지지가 필요하며, 이 때 가족 특히 배우자의 지지는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 줄 수 있고 적절한 상황 대처가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또 배우자가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전환에 의한 혼란 및 역할수행에 대한 어려움을 인지하고 지지할 수 있는 내적 체계 지원 방안과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정보 및 지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외적 지지체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심리 변인은 구조적 측면보다 기능적 측면의 사회적 지지와 관계성이 높았다. 심리적 안녕감·생활만족·자아분화·우울 감소는 기능적 측면의 평가적 지지에 대한 지각 정도와 정적인 관계가 높았다. 자신에 대한 평가적 지지가 낮게 지각될 때 위축된 사회적 행동을 유발하고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Choi, 2006), 여성결혼이민자는 이주 과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소통 부족으로 인한 사회참여 제한을 경험하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지각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결혼이민자가 자신의 긍정성을 발견하고 가치화·내면화할 수 있는 지지체계가 요구된다.

정리하면 여성결혼이민자의 적응문제와 관련성이 있는

결혼생활 및 심리사회적 관련 변인들은 구조적·기능적 측면의 사회적 지지를 통합적으로 지각할 때 좀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효율적인 지지 체계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배우자 대상 교육 확대 및 부부적응 지원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배우자 지지는 다른 주요 타자들의 지지와 비교했을 때 대부분의 관련 변인들과 유의미한 관계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 지지가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생활을 포함한 복합적 적응문제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또 배우자 지지는 단일 차원적 지지보다는 기능적 측면의 제 하위영역들과 연계성을 가질 때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다각적 측면에서의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2008.3.21 제정·2009.9.22 시행)에 의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통합의 일환으로 여성결혼이민자와 가족구성원 대상 집합교육(년 단위 60시간)을 필수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배우자 및 부부교육을 통합교육에 포함하고는 있지만 필수사업 충족시간을 배우자·부부교육 6시간, 아버지교육 4시간으로 제시하고 있어(여성가족부, 2013: 27),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또 교육 참여 의지를 가진 배우자는 한정적이고 교육 이후 진행되는 배우자 자조모임은 센터 자원에 맡기고 있어서 교육에 대한 긍정적 환류 정도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외의 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다문화 사업 또한 여성결혼이민자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이해 및 체험프로그램, 임신과 출산, 자녀 건강과 교육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으로(Choi et al., 2010: 29), 배우자·부부 교육의 확대 구성이 요구된다. 교육내용은 다문화 이해 또는 한국문화 동화에 중점을 두기보다 부부적응을 위한 내적차원의 변화를 도모하고 여성결혼이민자와 배우자가 관계의 조화로움을 기능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인간차원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부부관계는 상호론적 관점이므로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배우자와의 상호작용관계 이해 및 양성 평등한 부부역할 수행, 바람직한 의사소통 방법 등에 대한 지원이 요구되고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와 국제결혼으로 인한 상호 기대 차이를 조율할 수 있는 노력과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둘째, 원가족과 지속적인 유대감 확보 방안 및 시부모와의 관계 인식 변화를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 대부분의 여성결혼이민자는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남편의 통제 등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모국 가족과의 왕래 및 교류가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다문화주의 보다는 동화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실정으로, 모국에 대한 향수나 의존보다 한국문화에 적응하고 수행하기를 강조하고 있

다. 그러나 원가족 지지를 지각할 때 여성결혼이민자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원가족 유대와 관련한 배우자 및 가족의 이해와 다각적인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시부모와의 조력자적 관계 형성을 통해서 원가족 지지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는 결혼이민자가 적응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기능적 측면의 정서적·정보적 지원체계 구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시부모와의 관계 인식 변화를 위해서 시부모 단일 대상 획일적 교육보다는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활동 지원을 통해 상호 내적차원의 이해적 접근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 공동체 및 자조집단 활성화와 사회 활동 참여 기회부여가 필요하다. 여성결혼이민자는 사회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으므로(Kim, 2007), 양육 및 일상생활에 관련한 정보 접근이 용이한 공동체 구성과 사회 활동 참여를 위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그리고 다양한 자기 개발 교육의 참여 기회 제공이 요구된다. 이러한 활동적 지원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지지 관련 변인들과 유의미한 관계성을 보인 구조적·기능적 측면의 제하위영역의 지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를 수혜 대상자가 아닌 사회적 자원으로 인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적 자원으로의 인식은 여성결혼이민자 스스로 긍정적인 평가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게 함으로써 사회적응 및 통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관련 변인의 상관관계에 중점을 두었기에 제한된 사례의 논문이 메타분석에 활용되었다는 점과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분석 논문에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효과 관련 연구를 포함 확대시키고 여성결혼이민자의 이주 년차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지지와 관련 변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합하는 메타분석을 통해서 통합적 사회적 지지체계를 위한 근거 마련 및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지지체계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REFERENCES

*표시한 문헌은 메타분석에 포함된 연구임

Abernaty, V.(1973). Social network and to the maternal rol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Family*, 3(1), 86-92.

Belsky, J. & Kelly, J.(1994).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How first child changes a marriage: Why some couples grow closer and others apart. Toronto: Bantam Doubleday Dell Publishing Group.

Bodenmann, G. & A. Cina.(2006). Stress and coping among stable-satisfied, stable-distressed and separated/ divorced swiss couples: a 5-year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44(1-2), 71-89.

Borenstein, M., Hedges, L. V., Higgins, J. T., & Rothstein, H.(2009). Introduction to meta-analysis. John Wiley and Sons, New York.

Carmen, L. & Vicki, C.(2000). Race matters. *Journal of Intercultural Studies*, 21(1), 5-24.

Chang, C. Y., & Myers, J. E.(2003). Cultural adaptation of the wellness evaluation of Lifestyle: An assessment challenge.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35(4), 239-251.

Choi, C., Mo, K., Kim, Y., Park, S., Oh, E., Han, Y., Lim, E., Woo, H., Lee, S., & Lim, J.(2010). *Understanding of multicultural education*. Seoul: Yangseowon.

*Choi, K.(2006). *A study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marriage satisfaction and social support of the female marriage immigra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Chu, H., Park, O., Kim, J. & Park, J.(2008). The effect of family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marital adjustment for the immigrant woman's husband.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3(4), 85-101.

Chung, J. & Shin, I.(2009). A meta-analysis of achievement of charter school student in the united states.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27(1), 101-122.

Cobb, S.(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4.

Cohen, J.(1988). *Statistical power for the behavioral sciences*(2nd ed.). Hillsdale, NJ: Erlbaum.

Cohen, S. & Hoberman, H. M.(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2), 99-125.

Dehle, C., Larsen, D., & Landers, J. E.(2001). Social support in marriage.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9(4), 307-324.

Frank D. Fincham & Thomas N. Bradbury.(1998). Social support in marriage: the role of social cognition.

- Glass, G. V., McGaw, B., & Smith, M. L.(1981). Meta-analysis in social research. Beverly Hills, CA: Sage.
- Glass, G.(1977). Integrating findings: the meta-analysis of research. *Review of Research in Education*, 5, 351-379.
- Gottlieb, B. H.(1983). Social support strategies: Guidelines for mental health practice.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 Gottlieb, B. H. & Bergen, A. E.(2010). Social support concepts and measures.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69(5), 511-520.
- Graham, C. W., Fischer, J., Crawford, D., Fitztrick, J., & Bina, K.(2000). Parental status, social support, and marital adjustment. *Journal of Family Issues*, 21(7), 888-905.
- Green, B. & Hall, J.(1984). Quantitative methods for literature review.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5, 37-53.
- *Ham, J., Jung, H. & Kwon, M.(2009). Effect of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on psychological well-being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23(2), 329-348.
- *Han, J.(2007). *The effect of acculturation and social support on the child rearing efficien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 Harper, J., M. Schaalje, & J. G. Sandberg.(2000). Daily hassles, intimacy, and marital quality in later life marriag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8(1), 1-18.
- Higgins, J. P. T., Thompson, S. G., Deeks, J. J., & Altman, D. G.(2003). Measuring inconsistency in meta-analyses. *British Medical Journal*, 327(7414), 557-560.
- *Hong, M.(2009). *A study on acculturative stress and dyadic adjustment of immigrant women who married to korean me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couple's communic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House, J.(1981). Social structure and personalityin, M. Rosenberg & R. Tumer(eds.). *Social Psychology: Sociological perspective*. N. Y.; Basic Books.
- *Hyun, K. & Kim, Y.(2012). The impact of acculturative stres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among female marriage immigrants: direct and moderation effects of social support.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7(4), 653-677.
- Jang, D. & Lee, K.(2010). Effects of public support on mental health and adaptation to korean culture in married immigrant Women. *Gender and Culture*, 3(1), 67-97.
- Jeong, M.(2010). *Impact of perceived social support on positive maternal attitudeamong female marriage immigrants: the case of inche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cheon University, Incheon .
- Jun, C. & Park S.(1998). Exploration of psychosocial variables related to mother's parenting stress. *Journal of Korea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6(1), 95-105.
- *Kang, S.(2008). *A study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marriage satisfaction and support of the female marriage immigra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angji University, Gangwon-do.
- Kaplan, A.(1977). Social support: The construct and its measurement. Unpublished Bachelor Thesis, Brown University, Providence, RI.
- Kaplan, B. H., Cassel, C. J., & Gore, S.(1977). Social support and health. *Medical Care*, 15(5), 47-58.
- Kim, B. & Han, M.(1995). Effects of mental practice on motor performance in korea: a meta-analysis. *Korean Journal of Sport Psychology*, 6(1), 67-88.
- Kim, D., Kim, S., & Shin, H.(2007). The study on impact of spousal support and social support on foreign wives's parenting stress in rural areas. *Family and Culture*, 19(3), 53-78.
- *Kim, E.(2007). *Acculturative stress, social support and social adjustment of marriage-based immigrant wo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ungcheongbuk-do.
- Kim, E.(2011). *A study on acculturative stres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affecting depression of married female migrants in korea: focused on gyeonggi-do and chung-nam (cheon-ahn. a-sa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ngnam University, Gyeonggi-do.
- *Kim, H.(2010). *An impact of nurtur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of woman marriage immigrants on their marriage satisfaction-based on woman marriage immigrants of daegu and kyungbuk province a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Gyeongsangbuk-do.
- Kim, H.(2011). Impacts of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on depression among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in daegu and kyungpook

- a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2), 188-198.
- *Kim, H.(2012). *Correlation of depression, somatic symptoms, acculturative stress and social support of married immigrant women in iksan c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Jeollabuk-do.
- Kim, H., Kim, H. & Oh, J.(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marital quality among marriage migration females. *Family and Culture*, 22(3), 97-127.
- Kim, H., Kim, H. & Oh, J.(2011). The determinants of marital quality among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the importance of life stress and social support. *Korean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4(1), 27-51.
- *Kim, J.(2010). *A study for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on intermarried immigrant women's acculturative stress who got married to Korean 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l University, Gyeonggi-do.
- *Kim, J.(2012). *A study on social network, social support and stress of female marriage immigrant in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M.(2012). *A study on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cultural adaptation for marriage immigrant women on their degree of life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Gyeongsangnam-do.
- *Kim, N.(2007). *A study on life satisfaction about international marriage of women immigrants-focus on social support and social particip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S.(2010). *A study on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immigrant women's marital satisfaction who married to Korean 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l University, Gyeonggi-do.
- Kim, Y.(2007). Immigrant women's mental health impact of spouse efforts to understand her cultural homeland and psychosocial support. Conference of The Korea Academy of Mental Health Social Work, 259-280.
- Kim, Y., Lim, J., & Jung, S.(2008). A comparison on multi-cultural mothers' rearing attitudes according to personal variables.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3(3), 143-164.
- Kong, M. & Oh, S.(2010). Its effects of gender role attitudes and social supports on marital satisfaction among international marriage couples-focused on Vietnamese & Filipino woman-Korean man couples in Busan. *Family and Culture*, 22(2), 95-120.
- Lakey, B. & Cronin, A.(2008). Low social support and major depression: Research, theory and methodological issues. In K. S. Dobson & D. Dozois(Eds.), *Risk factors for depression*(385-408).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Lee, J.(2007). *The research on the social support and quality of life of the old : focused mainly on the old living in cit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Seoul.
- Lee, Y. & Kim, T.(1999). A study on the buffer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stress of the elderly who lives alone.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19(3), 79-93.
- *Lee, Y.(2011). *The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on marital satisfaction for women marriage immigrants-focusing on the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accultur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nkuk University, Seoul.
- Leslie, L. A. & Letiecq, B. L.(2004). Marital quality of African American and white partners in interracial couple. *Personal Relationships*, 11(4), 559-574.
- Littell, J. H., Corcoran, & Pillai, V.(2008).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is*. Oxford University Press.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2013). *2013 Multicultural family business guide*.
- *Na, D. & Park, J.(2009). Marital satisfaction and social supports of the female marriage immigrant influencing on the parenting behavior. *Family and Culture*, 21(4), 1-20.
- *Nam, I. & Ahn, S.(2011). Comparison of stress, social support, and marital satisfaction between married immigrant women in urban and rural area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Women's Health Nursing*, 17(2), 99-108.
- Norbeck, J. S.(1981). Social support: a model for clinical research and application. *Advances in Nursing Science*, 3(4), 43-59.
- Oh, S.(2011). *Meta-analysis: theory and practice*. Konkuk University Press.
- Park, J.(1985). *A study to develop a scale of social suppor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Park, M. & Um, M.(2009). A study on the social relation and life satisfaction of female marriage immigrant.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4(2), 1-26.
- Song, K.(2010). *The influence of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on social adjustment of married immigrant wo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am University, Gwangju.
- Statistical Korea.(2012). 2011 Marriage statistics.
- *Sung, J.(2008). *Status of female immigrants for international marriage and a study on social support and melancholia*.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Seoul.
- Thoits, P. A.(1995).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process: where are we? what? when nex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Extra Issues*, 53-79.
- Todd, D. Little.(2012). *Applied meta-analysis for social research*. New York, London; The Guilford Press.
- Tomlinson, J.(1999). *Globalization and cultur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Uchino, B. N.(2004). Social support as coping assistanc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4), 416-423.
- Wilcox, B. & Vemberg, E. M.(1985). Conceptual and theoretical dilemmas facing social support research. In I. G. Sarason & B. R. Sarason(Eds.). *Social support: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3-20. Dordrecht, The Netherlands: Martinus Nijhoff Publishers.
- *Yoo, Y.(2011). *The effects of married immigrant women's acculturative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their marital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yang University, Gyeongsangbuk-do.
- Zimet G. D., Dahlem N. W., Zimet S. G., & Farley G. K.(2003).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1), 30-41.

접수일 : 2013년 07월 15일

심사일 : 2013년 08월 05일

게재확정일 : 2013년 09월 11일